

영어 중첩복합어 분석

김형엽
(고려대학교)

1.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영어에서 발견되는 중첩복합어의 유형들을 확인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예들이 최근의 언어학 이론 중에 하나인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중첩복합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첩현상(reduplication)은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들에서 확인되었고, 형태론에서도 이 현상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중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최적성이론은 형태론과 관련된 이론들 중에서 중첩 현상을 가장 성공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한 이론으로서 알려져 있다.

제한된 수의 단어들인 언어 행위의 기본 목적인 의미를 전달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주어진 단어들을 변형시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언어 형태를 핵으로 하여 단어 앞과 뒤에 다른 요소를 가미하는 방법은 형태론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첨가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파생(derivation), 굴절(inflexion), 합성(compounding)의 방법들인데, 형태론에서는 이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단어형성규칙(word formation rule)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방법에는 독자적인 규칙 형태가 부여되었으며,¹⁾ 규칙에 의하면 기존의 모

【주요어】 영어중첩, 단어형성, 최적성이론, 복합어

1) 단어형성규칙

파생: []Y → [[]X + affixY]X

굴절: []X → [[]X + affixY]X

합성: []X, []Y → [[]X Q []Y]Z

든 단어는 원칙적으로 변형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어근(root)이 될 수 있다. 어근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은 주로 접사(affix)로 정의되었고, 합성에서는 내부 구조를 단순 단어형태로 제한하여 두 단어 이상이 합쳐서 또 다른 합성 단어를 형성하도록 규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합성 규칙은 어근이나 접사의 연결과 달리 좀 더 복잡한 규칙 유형을 소지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나중에 형태론과 통사론의 연결 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형태통사론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처럼 형태론에서 단어 형태의 변화와 의미 전개 방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세심하게 취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현상에 대해서는 연구 빈도수나 성과 면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첩현상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즉 자료 자체의 희소성이 결국 연구의 양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중첩현상이 몇몇의 제한된 언어에만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여러 지역의 언어에서 두루 발견되기는 하지만, 한 언어에 제시되는 중첩현상 관련 예라는 것이 수적인 측면에서 너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태론에서는 파생, 굴절, 합성과 같은 형태론 상의 현상들에 대하여 단어형성규칙과 같은 분석 방식을 제안하였지만, 중첩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설명 방식을 찾지 못한 듯 하다.

둘째는 각 언어마다 제시하는 중첩 현상의 모습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중첩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의 핵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전체 중첩현상은 중첩이 있는 언어에는 어디에서나 관찰되지만, 핵 부분의 일부만을 반복되는 중첩 유형을 보면 언어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특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한 언어 내에서라도 단어형성규칙처럼 일반화된 공식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파생, 굴절, 합성처럼 규칙에 충실한 현상들은 모든 언어에서 가능하지만, 중첩현상만은 언어마다 차이점이 있는 관계로 몇몇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예는 Maori, Agata, Papago, Turkish, Thai에서 발견되는 부분 중첩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1) Maori

tango	‘손으로집어 올리다’	tatango	‘서로 빼앗다’
kimo	‘윙크하다. 눈을 감다’	kikimo	‘눈을 질끈 감다’

Agta

takki	‘(사람)다리’	taktakki	‘다리들(복수)’
uffu	‘허벅지’	uffuffu	‘허벅지들(복사)’

Papago

bana	‘코요테’	baabana	‘코요테들’
kuna	‘남편’	kuukuna	‘남편들’

Turkish

dolu	‘차다’	dopdolu	‘꽤 차다’
------	------	---------	--------

Thai

dii	‘좋다’	dīidii	‘정말 좋다’
-----	------	--------	---------

셋째는 중첩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의미적 변화에서 일관성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어형성규칙의 해당하는 형태적 현상들은 단어의 형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미 변화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지만, 중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미의 변화 현상은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전체 중첩의 경우에 단순 반복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의미의 강화 현상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분만을 복사하는 부분중첩현상은 의미의 단순 강화라는 측면을 위배하는 많은 예가 발견하였다.²⁾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첩은 형태론에서 다루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어형성규칙에 포함시켜 설명하기 보다는 별도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편이 훨씬 편리하다. 경우에 따라서 중첩현상을 단어형성규칙 중에서 접

2) 위 (1)에 제시된 중첩의 예들을 보면, 중첩이 발생하고 나서 의미의 변이가 언어마다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두사와 접미사를 첨가하는 접사적용(affixation)처럼 간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방법론들이 중첩 자체를 충분히 설명하기 보다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든지 형태론 현상들 중에 하나로서 포함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적성이론은 기존의 형태론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방법론에 의하면 중첩 현상도 다른 단어형성 과정들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 내용에서는 과연 최적성이론이 영어의 중첩 현상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2. 중첩 현상 분석

2.1. 영어 중첩 현상 관련 예

이제부터 영어에서 발견되는 중첩의 예들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Jespersen(1961)의 분석에 의하면 중첩현상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2) a. Kernel Repeated Unchanged

전체 중첩으로서 핵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이다.

blang-blang	‘구급차, 기차 소리’
bubble-bubble	‘물방울 소리’
chip-chip	‘도끼 소리’
chuff-chuff	‘칙칙폭폭 소리’
chug-chug	‘쇠수들이 진흙탕을 걷는 소리’
chut-chut	‘자동차 엔진 소리’
chick-click	‘바느질 소리’
clank-clank	‘절걱거리는 소리’

b. Kernel Repeated with Change of Vowel

전체 중첩이지만 중첩 부분의 모음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bibble	‘떠듬거리며 말하는 소리’
chiff chaff	‘새 이름’(chik chak라고도 함)
click clack	‘지팡이 짚는 소리’
dilly dally	‘시간 낭비’
jingle jangle	‘딸랑딸랑’

c. Repetition with Change of Initial Consonants

중첩이 일어나면서 단어 처음에 위치한 자음이 바뀌는 경우이다.

clatter patter	‘말이 내는 덜거덕 소리’
hocus pocus	‘주문 소리, 속임수’
namby pamby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장’
roly poly	‘푸딩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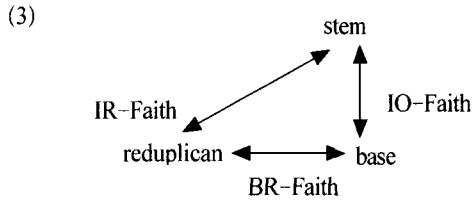
2.1. 분석 방식 개요

2.1.1. 상응최적이론

이제부터는 최적성이론 이론에 속하는 상응최적이론(Correspondence Theory)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이 이론은 McCarthy and Prince(1995)의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으로서 최적이론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할 수 있도록 발전된 것이다. 특히 이 이론이 제시하는 모델은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중첩 현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응최적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상응관계를 보여주는 단계를 셋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각 단계는 원형인 어간(stem), 어간에 어느 정도의 형태·음운적 현상에 반영된 어기(base), 중첩 현상이 반영된 부분인 중첩부위(reduplicant)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들의 관련성은 어간과 어기는 ‘IO-Faith’라고 하고, 어기와 중첩부위는 ‘BR-Faith’라 하며, 중첩부위와 어간은 ‘IR-Faith’라 명명한다. 여기서 ‘Faith’는 ‘faithfulness’의 준말로써 각 단계 상호간의 일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명칭을 잘 살펴보면 상응모델의 본래 의도는 각 단계 사이의 일치를 가능한 유지하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간과 어기의 차이는 음운·형태적 변화

의 유무와 관련성이 있다. 설명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가 중첩 현상의 적용 대상이 될 때 이 언어 단위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첩 현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어느 정도의 변형이 첨가된 후 중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어간과 어기에 나오는 언어 단위가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 없는 지가 결정된다. 상응모델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방법은 영어의 중첩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일단 전체 중첩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지만 부분 변화 현상이 수반되는 중첩현상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2b)와 (2c)는 원칙적으로는 전체중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분의 변화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을 내놓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McCarthy(1997)에서는 (2b)와 (2c)와 같은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fixed segmentism'라는 방식 제안하였고 그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다른 언어들에도 적용시켜 보았다. 예를 들어 Yoruba에서는 중첩부분에 항상 'i'라는 동일한 모음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i'를 중첩부분의 고정 모음으로 설정하였다.³⁾

(4) Yoruba

gbónágbí-gbóná	'be warm, hot'
dáradí-dára	'be good'
její-je	'eat; act of eating'

3) 도표 왼편에 주어진 후보들 중에서 아래첨자로 사용된 숫자들은 어기와 중첩부분의 일치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Red] - jε	MAX _{IO}	H(i)	MAX _{BR}	DEP _{BR}
⇒ jI ₁ - jIε ₂		ε	ε	i
jIε ₂ - jIε ₂		ε, ε !		
jI ₂ - jIi ₂	ε !			

위 도표의 초점은 'H(i)'인데, 이 제약은 중첩부분에 항상 'i'가 오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Yoruba에서는 'i' 모음에 대한 제약 조건이 중첩 현상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언어에서 모음이 음절의 재배치 과정에서 'CV'와 같은 모습으로 정상화되도록 삽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i'모음이 자동적으로 삽입된다. 즉, 'i' 모음의 분포와 음운 및 형태적 변화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언어에서 이 모음은 해당 언어 전체적으로도 어떤 모음들보다도 훨씬 적극적으로 단어 형태 변화에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i' 모음을 단어 변형과 음절 정상화에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i' 모음을 설명을 위하여 'H(i)'처럼 제약 조건으로 사용하여도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위 설명에 의하면 중첩 부분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자음이나 모음이 중첩현상에 한해서는 늘 일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 이 조건에 위배되는 많은 예들이 존재하고 있다.⁴⁾

- (5) chick-chuck, drip-drop, nibble-nobble
balow-baloo, gew-gaw, twisty-twirly

또한 지속적으로 특정 분절음이 중첩 부분에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절음이 중첩 현상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2b)에서 'i'와 'a'의 지속적인 상호 변이는 중첩 현상 이외의 다른 경우에는 어디서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Yoruba에서 'i'는 중첩현상 이외에서 삽입모음으로 여러 언어 현상에 널리 이용되지만, 영

4) (2c) 경우에 첫 자음은 'b, p, f, w'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에서 ‘i’나 ‘a’ 모두가 Yoruba의 경우와 달리 딱 부러지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1.2. 부분 덮어쓰우기 방법

McCarthy는 ‘fixed segmentism’의 방식이 (2b, c)에 제시된 예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첩 부분에 반복되는 분절음들을 기존 분절음 대신 다른 분절음으로 대체하는 ‘덮어쓰우기 방법’(melodic overwriting)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McCarthy(1994)에서 ‘fixed segmentism’의 이론적 바탕으로 채택된 ‘TETU’(The Emergence of The Unmarked)의 적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것으로서 중첩 부분에 항상 반복되는 분절음들이 기존의 분절음 자리에 있는 요소를 떼어내고 대신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부분의 단순 대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McCarthy(1997)에 (6)에서와 같은 예들을 제시하였고 이들 예들을 ‘반향 현상 단어’(echo words)라고 명명하였다.⁵⁾

- (6) table-schmable
 electric-schmeletric
 gravity-schmavity
 networking-schmetworking
 Oedipus-Schmoedipus

McCarthy와 그 외 학자들은 위 예를 ‘덮어쓰우기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sch-’를 접사로 취급하였다. 그 이유는 비록 ‘sch-’가 단순하게 주어진 단어의 앞에 있는 자음을 대체하지만, 이와 같은 중첩 말미에 나오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좀 더 수정된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단순 대체 요소를 마치 독립적인 기능을 소지한 접두사(prefix)인 양 가정하여 중첩 부분에 첨가되는 것으로

5) 이들 단어들은 주로 저널리즘, 인터넷, 광고 문구처럼 상업적인 목적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다.

서 설명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형태론에 의하면 모든 첨가 요소는 독립적인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n-, un-, pro-’와 같은 접두사들은 단어에 첨가되면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단어 전체에 의미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첩현상에서도 ‘sch-’가 중첩 부분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첩 단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2c)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덮어씌우는 자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만일 모든 중첩 부분에 ‘sch-’처럼 한정된 소리만이 반복되어 덮어씌우기에 적용된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 종류의 자음들이 덮어씌우기 방법에 적용된다면 이것은 결국 예외적이라는 말 이외에 어떤 것으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첩 부분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제시되는 모든 자음이 접미사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도 영어 형태론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b)의 경우 모음의 변화는 사실 자음의 대체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 그 이유는 중첩 부분에서 모음들이 위치한 부분들은 접두사, 접미사의 어디에도 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모음들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접요소(infixing)라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McCarthy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우선 McCarthy and Prince(1993, 1995)에서 그는 단어 내부에 새로운 분절음을 삽입하는 접요사를 접사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단어 내부에 다른 요소를 삽입하는 방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형태론에서 단어의 모양을 중시하는 측면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

6) 모음 대체 현상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Marathi

saman-suman	‘여행집’
dhak-dhuk	‘공포, 걱정, 염려’
khəra-khura	‘사실, 진실’

Thai

kin-kən	‘승리 만찬’
thəw-thəw	‘근처의 공공 지역’
naŋsyy-naŋsəə	‘문학이나 유사한 것’

관되어 있다. 만일 어떤 단어든지 의미 확장을 필요로 하게 되면 단어의 앞과 뒤에 접두사나 접미사와 같은 다른 요소를 첨가하는 것은 형태 유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새로운 요소를 단어 내부에 삽입하게 되면 단어 모양 자체에 변형이 생겨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2b)에 제시된 단어들은 주로 2음절 이하의 단어들이지만 단어가 3음절 이상인 경우에 과연 어떤 부분의 모음이 대체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예만 본다면 첫음절의 모음만이 다른 모음으로 변하지만, 단어의 음절이 늘어감에 따라 과연 같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영어의 중첩 현상은 단순하게 합성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체 중첩을 단순하게 의미 강화를 위한 합성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핵으로 제시된 단어의 자음이나 모음 등의 부분적 변화가 수반되는 것들은 외적 변화만을 토대로 설명하기에는 아마도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McCarthy는 ‘덜어내기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사실은 영어의 부분 변화 중첩의 예들이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일 뿐 어떤 설명도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영어를 다른 언어와 구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어의 경우는(1)에 제시된 중첩 형태를 거의 다 보여 주고 있는 반면 영어는 그렇지 못하다.7) 이런 경향은 영어에만 있는 것이 아

7) a. pəl-pəl ‘벌벌’ sil-sil ‘슬슬’
 t'opak-t'opak ‘또박또박’ hantil-hantil ‘한들한들’
 komcilak-komcilak ‘꼼지락꼼지락’
 bi. 한음절 단어의 중첩
 pə-pəl ‘버벌’ pha-phak ‘파팍’ k'wa-k'wang ‘과꽁’
 ii. 두음절 단어의 중첩

니며 영어를 포함한 서유럽 언어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들자면 중첩현상의 분포인데, 대표적인 중첩 유형은 주로 비유럽권 언어들에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인용문헌

- Alderete John, Jill Beckman, Laura Beuna, Amalia Gnenadesikan, John McCarthy and Suzanne Urbanczyk. "Reduplication with Fixed Segmentism". Ms., 1997.
- Archangeli, D. and D.T. Langendoen, eds. *Optimality Theory*. Blackwel, 1997.
- Beuna, Laura. "Identity Effects in Morphological Truncation". In *Papers in Optimality Theor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 77~136. Amherst, Mass, 1995.
- Chomsky, Noam and M. Hall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and Row, New York, 1968.
- Jespersen, Otto. *A Modern English Grammar(part VI)*.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61.
- McCarthy, John J. and Alan S. Prince.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1993.
- McCarthy, John J. and Alan S. Prince.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Papers in Optimality Theor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 249~384. Amherst, Mass, 1995.
- Mohanan, K.P. *Lexic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1982.
- Prince, S. Alan and Paul Smolensky.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and University

tu-tung·sil	'두둥실'	sa-sal·c'ak	'사살짝'
pa-sa-sak	'바사삭'	ho-lo-lok	'호로록'
t'a li-ling	'따르릉'	al-lo-lok	'알로록'
tek-te-kul	'텍테쿨'	kol-ko-lu	'골고루'
t'ol-t'ə-lim	'떨떠름'	pəp-pə sis	'벗버섯'

Colorado, Boulder, 1993.

Steriade, Donca. Reduplication and syllable transfer in Sanskrit and elsewhere.
Phonology 5, 1988. 73~155.

Yip, Moira. "Reduplication with Fixed Melodic Material". *NELS* 22, 1992. 459~473.

[Abstract]

An Analysis of English Reduplicative compounds

Hyung-Youb Kim
(Korea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Jespersen analyzed the date of English compound related with reduplication. Especially dealing with the compound words he classified the examples related with reduplication as a separate part and attempted to account for the patters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first syllable constituting the initial part of the second element in a compound word. I tried to explain the peculiar shape of the reduplicational pattern in English based on the Optimality Theory, especially the method of 'melodic overwriting' of McCarthy(1997).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nitial part of the second element of a compound has to be stipulated before reduplication occurs. When the reduplicant has to be decided at the first syllable of the second element, the form which is stipulated to take the position comes to appear at the post instead of repeating the morphemic shape of the first syllable at the first element of the word.